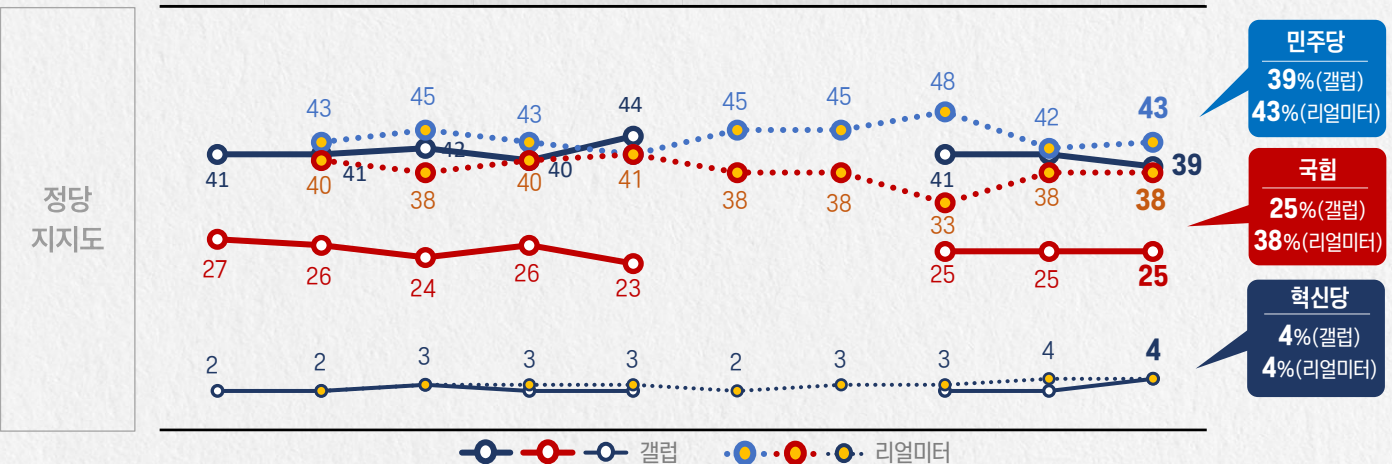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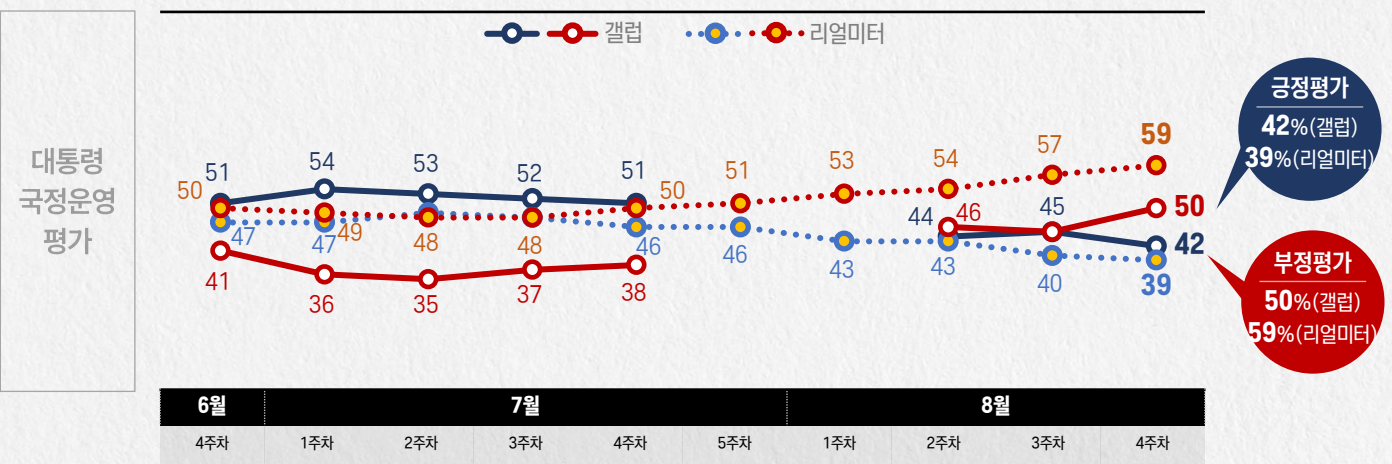


01 금주의 화두 :

■ 이재명 정부의 8.30 개각, 민심 순응의 신호탄?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인가?

02 주간 여론 동향 (2026년 6월 4주차 ~ 2026년 8월 4주차, 전화면접조사)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권
주요뉴스

- (08.24) 김민석·장동혁 첫 회동 /李大통령,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의 수용
- (08.25) 유시민 “李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 /李大통령 “경찰, 앞으로 가장 큰 권력…警 개혁기구 구상해야”
- (08.26) 개혁신당 이준석 당대표 사퇴 / 여야 ‘세계개편안’ 공방…“역대 최악” vs “尹정부 세수 결산 회복”
- (08.27) 한은, 기준금리 2연속 인상…연 2.75→3.00% /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돌연 취소
- (08.28) 李,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재제청 요청 / 초유의 ‘대법관 후보자 반력’…與 “적법절차 원칙” vs 국회 “명백한 위헌”

※ 8월 4주차 여론조사 결과 (세부)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사개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정당지지도			
		조사기간	사례수	응답률	긍정	부정	GAP (긍정-부정)	민주	국힘	혁신	(無)
CATI (가상번호)	NBS	08/24 ~ 26	1,001	15.4%	50	43	(+7%p)	41	20	2	(31)
	갤럽	08/25 ~ 27	1,001	9.5%	42	50	(-8%p)	39	25	4	(26)
	꽃	08/28 ~ 29	1,004	11.0%	50	50	(0%p)	46	30	4	(16)
ARS (RDD)	리얼미터	08/27 ~ 28	1,006	2.9%	39	59	(-20%p)	43	38	4	(9)
	꽃	08/28 ~ 29	1,004	2.5%	42	57	(-15%p)	49	35	5	(3)

여론
동향

- [갤럽]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환수 46% vs. 환수 시기 연기 41%
'우리나라도 핵무기 보유' 주장: 찬성 65% vs. 반대 30%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통합하는 것이 좋다 30% vs. 통합하지 않는 것이 좋다 58%
- [NBS]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수행 기대감: 긍정적 50% vs. 부정적 3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직무수행 평가: 긍정평가 23% vs. 부정평가 62%
이재명 대통령 불출마 표명 필요 주장: 동의 63% vs. 비동의 28%
8.13 부동산 대책 효과 기대감: 효과 있을 것 34% vs. 효과 없을 것 57%
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의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59% vs. 용산공원 등 도심 부지 활용 29%
- [꽃]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국정운영 지원해야 43% vs. 독립성을 유지하고 개혁과제 완수해야 49%
북한 비핵화 관련 주장 공감도: 완전 비핵화를 계속 고수해야 38% vs. 현실적 목표로 재설정해야 58%
명태균 보석결정 평가: 적절한 결정 23% vs. 부적절한 결정 70%

03 정세 읽기

이재명 정부의 8.30 개각, 민심 순응의 신호탄?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인가?

6.3 지방선거 전후부터 시작된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8.17 전당대회 이후까지 지속되면서 정부와 당 안팎으로 불안감과 동시에 변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개각이 발표되었다. 6개 부처 장관 교체와 청와대 참모 라인 보강을 포함한 증폭 인사였다. 논란의 청와대 정책실장도 사퇴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의 공식 목적을 전 사회적 대전환,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 형사사법체계 안착, AI 3대 강국 도약으로 설명했다. 지지층이 느끼는 불안감과 변화에 대한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모양새다. 이번 인사가 국정 기조 변화와 국정 동력 반전의 긍정적 계기로 작용할 것인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번 인선에서 나타난 몇가지 특징들

첫째, 정책 오류에 대한 '문책인사이자 민심 순응 인사'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빚어진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화난 민심에 반응하면서 야당의 요구도 수용한 것이다. 국정 쇄신의 의지를 천명한 인사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이번 인사는 '정책 전환보다 실행력 보강'에 집중했다. 경제부총리와 국토부 장관에 현직 차관을 승진시킨 것은 대통령이 기존 경제·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정책 전환과 외부 개혁자 투입 대신에,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관료에게 실행 책임을 높여준 인사이다. 인수인계 기간을 최소화하고, 2027년도 예산과 가을 정기국회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 또한 부처와 청와대 정책라인 간 마찰을 축소하고 물가·부동산 등 민생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향후 6개월 내에 성과가 제대로 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부처보다 대통령과 청와대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이번 인사는 '범여권 통합의 의지를 인사로 구체화'했다. 용혜인·이해민·김경수 발탁은 '말로 하는 통합'보다 한 단계 진전된 인사이다. 혁신당은 이해민 수석 발탁에 동의하면서도 민생에서는 협력하고 개혁에서는 경쟁하며 자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정무특보는 친문계와 PK, 지방정치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민주개혁 지지연합 복원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와 능력이 검증될 것이다.

넷째, 이번 인사는 '확실한 세대교체' 의미를 내포한다. 1990년생 용혜인, 1985년생 이소영까지 포함하면 장관급 정치 리더십이 크게 젊어진다. 이 인사는 청년세대의 참여 확대, 차세대 인재 육성, 여성·돌봄·일·가정 양립 등 민감 의제의 복원 등의 메시지를 갖는다. 하지만 젊음 자체가 행정 역량의 유능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특히 용혜인의 경우, 정책 전문성과 대규모 부처 운영 경험, 국무위원과 의원 겸직 문제 등이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인사는 전면적인 국정쇄신행 개각이라기보다, 민심에 일정 부분 반응하면서도 기존의 노선을 유지하고 집행력·세대교체·범여권 결속을 강화한 부분적, 보완형 변화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03 정세 읽기

● 긍정과 부정의 엇갈리는 평가들. 향후 과정 관리가 중요

민주당은 이번 인사를 젊음, 전문성, 개혁진보연대 강화라는 세 축으로 긍정 평가했다. 특히 김민석 지도부가 제시한 민생·실용·확장 노선과 인사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를 기존 정책 노선의 불변 선언으로 규정하고, 특히 공소취소용 인사라고 힘주어 비판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경제·부동산의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AI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성장전략의 전면에 배치하면서 민주개혁 진영의 분열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려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반면 국힘 등 야권은 이번 인사를 '범여권 자리 나누기' 또는 '좌파 연합 개각'이라고 공격하거나 '회전문 인사'로 비판하기도 한다. 특히 국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공취모 전력과 관련하여 '공소취소 전격전'으로 정치적 공격을 시작했다.

모든 인사발표 초기에는 긍정과 부정평가가 교차한다. 결국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부터 시작되는 과정 관리가 개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인사는 발표 이후의 과정 관리가 중요하다. 정밀한 사전 리스크 관리와 민심 모니터링이 관건이다. 민심의 흐름을 잘 읽고 순응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의 경우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집중 타깃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여당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 이번 인사는 올 가을 정국의 첫 포문을 열 것이다

이번에 지명된 6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금년 가을 정국의 첫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추석 전 인청 완료 목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전선을 넓히기보다 김승원·용혜인·이형일·홍지선 후보자에게 공격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쏟아질 것이다.

김승원 후보자 지명으로 검찰개혁이 가을 정국의 최대 정치쟁점으로 재부상할 것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이번 개각의 성패를 판단하는 대표 이슈가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검찰 권한 분산, 피해자 보호, 새 수사체계의 안정적 안을 강조할 것이고, 야당은 대통령 재판 중단, 공소취소, 사법제도의 사유화 등을 부각할 것이다. 정부여당의 든든한 준비와 방어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형일·홍지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경제 및 부동산 이슈는 연말까지의 100일 성과시험에 들어갈 것이다. 검찰개혁에 이은 또 하나의 최대의 전선이 경제, 부동산 분야이다. 현직 차관에서 발탁 승진된 두 후보자는 연말까지 명확한 성과 제시를 요구 받을 것이다.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젊은 층을 포함한 민심의 반응이 관건이 될 것이다. 한편 민주당과 범여권의 관계는 당분간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개혁연합의 복원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민심의 반응이 추석 민심 및 금년 가을 정기국회 초반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다.

공공정책·정치컨설팅 그룹 원지코리아컨설팅

대통령 PI를 수행한 전략컨설팅의 강자 / 가장 정확한 조사

지자체, 공공기관 정책홍보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여론조사, 선거컨설팅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9층(여의도동 13-25)